

외식조리 관련 전공자의 학년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분석
- 충청도에 위치한 대학교를 중심으로 -

나 태 균¹⁾ · 정 양 식²⁾

영동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¹⁾ · 계명문화대학 식품영양조리학부²⁾

The Differences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Grade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Foodservice and Culinary
Arts Majors
- Focused on the Four-year Universities in Chungcheong Province -

Tae-Kyun Na¹⁾ · Yang-Sik Jung²⁾

Dept. of Hotel & Foodservice Culinary Arts, Youngdong University¹⁾
Dept. of Food, Nutrition and Cookery, Keimyung College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oodservice and culinary arts major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grad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levels. Toward this end, 250 students majoring in foodservice and culinary arts were selected as a sample from three universities located in Chungcheong province. A total of 217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analyzed after excluding 33 cop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upper-grade students were more actively engaged in career exploration, information collection, experiencing behavio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an lower-grade students. Second, the level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group with highe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as higher than the other with lowe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ird, the interactiv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grad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roved to b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u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hould be improved and the foundation of structured career education should be established according to grade.

Key word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lf-efficacy, foodservice, culinary arts, grade, career education

I. 서 론

과학기술의 발달, 대량생산과 소비, 지식정보화 사회인 현대사회는 이전 어느 시기보다도 빠른 직업변화를 겪고 있다(Lee JY·Yang NM 2007).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은 중고교

시절부터 자신의 적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진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학과 전공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Kim JH 2005).

뿐만 아니라 대학 입학 후에는 전공학과에 대한 불만족이나 부적응 현상을 경험하며 향후 자

신의 진로에 대해 심한 갈등, 불안,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고 있다(Jang BS 등 2010). 이러한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는 대학 생활적응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KW · Cho YH 2011).

이러한 현상은 외식조리 관련 대학생들에게서도 쉽게 발견된다. 외식조리 관련 교육은 1983년 경희호텔전문대학 조리학과와 신설을 효시로(Kim KY 2005), 지난 30여 년 동안 국내 외식산업의 발달과 여러 국제행사 및 사회·문화·경제적인 여건과 더불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Chong YK 등 2007).

그러나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예비 외식조리 관련 전공자를 필요로 하는 호텔 및 외식업체는 많으나, 외식업체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는 인적자원이 많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Choi IS · Hong DY 2002).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외식조리 관련 전공 분야의 역량기반 교육과정(Competency based curriculum)의 개발과 같이 레스토랑 관리자에게 필요한 역량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이 계획되어야 함이 연구되어져 왔다(Choi HJ 등 2007; Lee YB 2003).

더욱이 외식산업이 발전하면서 외식조리전공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직업군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자신의 조직이나 다른 직업군으로 변경하려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로 인한 손실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Lee JS 2005; Lee SH 등 2003). Ko DW와 Chun BG(2003)의 연구에 의하면 관광산업 관련 전공 학생들의 장래 이 분야에 대한 직업에 대해 매우 낮은 평가를 내렸으며 직업에 대한 존중감이 낮다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Kim JH와 Chun BG(2007)의 연구에서는 관광산업의 9개 직종 중 외식서비스종사원의 직업평가가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대산업 전공졸업생 중 약 31%가 첫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이 중 7.1%는 다시 환대산업 분야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Altman L & Brothers L(1995)의 연구결과와 같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직업을 선택한 경우 이직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 외식조리 관련 분야의 취업현장에는 인력의 과잉공급과 직업 기피현상이라는 악재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외식조리 관련 전공자가 결정하는 진로의 방향은 곧 그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진로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외식조리 분야의 진로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조리 관련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홍영옥 2011; Lee IS · Lee KL 2010; Kim KY · Lee JH 2006)으로 하였으며, 외식조리 분야의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진로태도 유형화에 관한 연구(Kim JH 2006; Kim JH 2005), 취업 시 주요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Lee KH · Kim TH 2005), 산학실습과 취업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Ahn SK 2009; Chong YK 등 2006) 등을 제외하고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대다수의 외식조리 관련 전공자들에게 직업선택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문소령 2010).

따라서 학문적 관점에서 외식조리 관련 전공자의 진로선택 및 준비과정에 관여되는 여러 변인들을 확인하고 그 영향력의 정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는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개인변수 중 학년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인들이 외식조리 관련 전공자의 진로준비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외식조리 전공자의 진로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고(Lee EK · Lee

HS 2002; Speich RT 1987; Betz NE & Hackett G 1981), 개인이 진로결정이라는 과업을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Lent RW & Hackett G 1987).

이러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Hackett G & Betz NE(1981)가 진로발달이론에 Bandura 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접목시킨 것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개인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의 정도를 말한다.

Hackett G & Betz NE(1981)는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과 직업적인 성취(진로 선택의 범위, 진로탐색에서의 지속성)에 중요한 인지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제안했다. Taylor KM & Betz NE(1983)는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대학생은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aylor KM & Popma J(1990)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 간에 높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으면 다양한 범위의 직업을 고려하여 진로결정을 더 잘하게 되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으면 진로의사결정 과업과 행동을 회피하게 만들고 결국 제한적인 직업을 고려하게 된다(Cho SY · Moon MR 2006).

2.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은 직업을 얻기 위해 필요한 직업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설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활동 등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인지나 태도적인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이다(김봉환 1997).

이러한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의 부족에 대해 김봉환(1997)은 첫째, 연구자들이 행동차원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둘째, 행동

의 측정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진로분야의 주요 연구주제가 주로 인지나 정서적인 측면에 관심이 집중된 반면에 행동차원의 중요성은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Cho TY · Lee MS 2009).

이러한 행동적 차원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진로준비행동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JH · Kim HS 2009; Park GW · Lee KH 2007; Park JG · Lee H 2006; Son EY · Son JH 200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을 더 활발히 하는 경향이 있고 긍정적이며 능동적인 것으로 밝혀졌다(Jang BS 등 2010; Kim YM · Hyeon SH 2008; Park JG 2006; Park JG · Lee H 2006; Lee KH · Lee HJ 2000).

Ⅲ. 연구 설계

1. 가설설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학년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Park JH · Kim HS 2009; Park GW · Lee KH 2007; Park JG · Lee H 2006; Son EY · Son JH 2005)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Kim HJ · Jang YO 2011; Jang BS 등 2010; Kim YM · Hyeon SH 2008; Park JG 2006; Lee KH · Lee HJ 2000)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외식조리 관련 전공자의 학년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외식조리 관련 전공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 외식조리 관련 전공자의 학년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충청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 중 외식조리 관련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3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이들 대학의 학생들은 가능한 학년 등이 고루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비확률 표본추출방법 중 편의표본 추출방법을 활용하였다.

2011년 04월 1일부터 30일까지 선정된 학과에 재학 중인 1-4학년 총 25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정규 수업 시간에 설문지를 완성토록 하였다.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의 목적과 응답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3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217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외식조리 관련 전공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Taylor KM & Betz NE(1983)과 Betz NE 등(1996)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Lee KH 과 Lee HJ(2000)가 타당화 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평가(5문항), 직업정보 수집(5문항), 목표선정(5문항), 계획수립(5문항), 문제해결(5문항)의 5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의 리커트형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2) 진로준비행동

외식조리 관련 전공자의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박완성(2002)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검사의 일부 문항을 대학생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기존의 진로탐색행동이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도구들(김봉환 1997; Kopelman RE *et al.* 1992; Stumpf SA *et al.* 1983)의 진로준비행동검

사의 내용을 분석하여 제작되었다. 이 검사는 총 22문항으로 진로탐색활동(10문항), 정보수집활동(5문항), 직업체험활동(5문항), 취업준비활동(2문항) 등 4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2문항의 리커트형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Window SPSS 17.0 version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군집분석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군집화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학년별 종속변수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총 217명의 응답자 중에서 남성이 138명(63.6%), 여성이 79명(36.4%)이고, 나이는 21세-25세가 137명(63.1%), 20세 이하가 41명(18.9%), 26세 이상이 39명(18.0%)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3학년이 66명(30.4%), 4학년이 58명(26.76%), 2학년이 56명(25.8%), 1학년이 37명(17.1%)으로 나타났다. 전공학과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86명(39.6%), 만족한다가 59명(27.2%), 매우 만족한다가 42명(19.4%), 만족하지 않는다가 25명(11.5%),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가 5명(2.3%)으로 학과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전공분야로 의 진출에 대해 그렇다가 81명(37.3%), 보통이다가 76명(35.0%), 매우 그렇다가 33명(15.2%), 그렇지 않다가 20명(9.2%), 전혀 그렇지 않다가 7명(3.2%)으로 전공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 전 교육경험은 없다

가 149명(68.7%), 있다가 68명(31.3%)으로 나타났다.

2. 측정 항목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측정 문항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측정 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총 22개의 변수를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이겐 값이 1.0 이상인 요인이 4개 추출되었다. 이들 요인들의 요인적재치가 0.6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변수들끼리의 상관성 여부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 값은 0.6보다 크면 유의하다고 하는데 0.917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 간의 상관이 0인지를 검정하는 Bartlett's 구형성 검정 통계 값이 4623.372(p=.000)로 상관행렬이 요인 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된 제1요인은 진로탐색활동, 제2요인은 진로 정보수집활동, 제3요인은 직업체험활동, 제4요인은

취업준비활동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진로탐색활동이 0.938, 진로 정보수집활동이 0.969, 직업체험활동이 0.908, 취업준비활동이 0.854로 나타나 신뢰성 있는 측정도구를 확인할 수 있다.

3. 군집분석 결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은 다수의 대상들을 그들이 소유하는 특성을 토대로 유사한 대상들끼리 그룹화 하는 다변량 통계기법이다. 군집의 추출방식 중 비 계층적 군집화는 계층적 군집화와는 달리 사전에 정해진 군집의 숫자에 따라 대상들이 군집들에 할당되는 것이다(이학식·임지훈 2006). 비 계층적 군집화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장 널리 이용되는 K-평균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97명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과 120명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s		N	%
Gender	Male	138	63.6
	Female	79	36.4
Age	≥20	41	18.9
	21-25	137	63.1
	26≤	39	18.0
Grade	Freshman	37	17.1
	Sophomore	56	25.8
	Junior	66	30.4
	Senior	58	26.7
Satisfaction degree in major	Very dissatisfied	5	2.3
	dissatisfied	25	11.5
	moderate	86	39.6
	satisfied	59	27.2
	very satisfied	42	19.4
Work intention in the field of major in the future	Strongly disagree	7	3.2
	disagree	20	9.2
	moderate	76	35.0
	agree	81	37.3
	Strongly agree	33	15.2
Education experience before admission	Yes	68	31.3
	No	149	68.7
Total		217	100

<Table 2>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s ¹⁾	Mean±SD	Factors ²⁾			
		1	2	3	4
I have been broadening common knowledge in preparation for job interviews.	3.47±.94	.862	.051	.115	.065
I have purchased and read books, specialty publications, and magazines related to career or employment.	3.24±1.04	.833	.098	.083	.262
I have searched for newspaper articles dealing with careers or occupations I hope to have.	3.33±.97	.825	.189	.175	.155
I have been endeavoring to improve my language skills by studying English or other foreign languages.	3.25±.93	.768	.031	.261	-.064
I have participated in a career fair.	3.00±.91	.720	.038	.434	.124
I have been collecting data from newsletters or promotional materials published by companies.	2.92±1.01	.690	.006	.462	.142
I have done a volunteer activity to learn the spirit required for careers or occupations I want to have.	3.29±1.02	.685	.193	.229	.235
I have collected and looked into information sheets provided by the company I want to work for.	2.97±1.09	.680	.283	.403	.174
I have been collecting and clipping data or pamphlets related to the field I am interested in.	3.14±1.06	.597	.069	.188	.376
I have visited the company I hope to enter.	3.12±.95	.548	.288	.524	.057
I have experienced the occupation I hope to have.	3.88±1.16	.111	.954	.131	.099
I have consulted and received advice from people working in the field I hope to enter.	3.83±1.18	.076	.943	.112	.067
I have participated in various contests related to the occupation and the field.	3.80±1.14	.129	.928	.089	.022
I have consulted older alumni in the same major.	3.88±1.17	.167	.926	.113	.078
I have actually asked for personal experiences, advice, and recommendations from experts in the field.	3.86±1.06	.068	.885	.104	-.030
I have settled my career after careful consideration.	2.93±.97	.238	.094	.828	.213
I have acquired relevant information from career-related web sites.	3.04±1.04	.190	.142	.819	.190
I have thought about my career by taking my hobbies, specialties, and talents into account.	2.95±1.00	.255	.004	.763	.109
I have checked my grades and then searched for suitable careers for me.	3.08±1.06	.316	.266	.738	.116
I have acquired information about the employment of the company I hope to enter.	2.87±1.05	.354	.189	.641	.447
I have been endeavoring to acquire certificates related to the field I want to enter.	3.09±1.11	.176	.080	.248	.843
I have learned and acquired required skills by attending a special institute related to the field I want to enter.	2.82±1.08	.300	.023	.274	.817
Eigen value		5.860	4.701	4.138	2.072
% of variance explained		26.635	21.367	18.810	9.418
Cronbach's alpha		0.938	0.969	0.908	0.854

¹⁾ KMO test=0.917, Bartlett test=4623.372, *df*=231, *p*=.000

²⁾ 1: Career exploration behavior, 2: Career information collection behavior, 3: Career experience behavior, 4: Career preparation behavior.

단으로 분류하였다. 각 집단 별 신뢰도 검정 결과 각각 0.917, 0.960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문항에 대한 평균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4. 가설 검정

외식조리 전공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학년에 따른 진로탐색활동요인에 대한 평균차이를

〈Table 3〉 The results of cluster analysi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Variables	Cluster	
	High	Low
I can acquire information about the career I am interested in from libraries or the Internet.	4.34	2.03
I can choose one major I want among a list of various majors.	4.33	1.97
I can form plans for the next five years.	4.25	2.04
I can settle measures I have to take when I face difficulties in studying my choice of major.	4.53	2.03
I can evaluate my abilities.	4.58	2.13
I can select one career out of the list of careers I have in mind.	4.53	2.03
I can find out the required curriculum for my choice major.	4.12	2.12
I can continue to perform tasks related my major or career goals even in hard situations.	4.21	2.57
I can find the ideal career for me.	4.38	2.55
I can examine the employment conditions of the field for the next 10 years.	4.26	2.32
I can settle the career that is suitable for the lifestyle I prefer.	4.36	2.47
I am good at writing a cover letter.	4.34	2.43
I am willing to change my major if I am dissatisfied with my first choice.	4.33	2.41
I can prioritize various values regarding career decision.	4.35	2.70
I can inquire into the average annual salary of the career I hope to have.	4.12	2.85
I can give up useless worrying about my career decision.	4.15	2.62
I am willing to change my career if I am dissatisfied with the career I have settled.	4.36	2.87
I can identify the sacrifices that I am willing to make in achieving my career goals.	4.39	2.55
I can have opportunities to consult experts working in the field I am interested in.	4.41	2.91
I can choose the major or the career I am interested in.	4.42	2.46
I can inquire into companies related to the career suitable for my talents and aptitudes.	4.43	2.62
I can understand the lifestyle I hope to have.	4.57	2.70
I can acquire information about graduate schools.	4.60	2.62
I can learn procedures needed for job interviews.	4.52	2.59
I am willing to consider other options if I cannot enter the field I have settled first.	4.45	2.70
n	120	97
Cronbach's alpha	.917	.960

측정한 결과는 <Table 4>에서 제시하였으며 통계적 검증을 위해 실시한 이변량 분산분석의 결과는 <Table 5>과 <Fig. 1>에 제시하였다.

첫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F=19.201, p<.001$)과 학년($F=10.277, p<.001$)에 대한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전공자($M=3.45, SD=.83$)가 낮은 전공자($M=2.83, SD=.60$)보다 진로탐색활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3학년($M=3.36, SD=.74$)과 4학년($M=3.53, SD=.8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학년($M=2.93, SD=.66$), 1학년($M=2.65, SD=.5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탐색활동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학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558$).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F=111.337, p<.001$)과 학년($F=2.662, p<.05$)에 대한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전공자($M=4.48, SD=.67$)가 낮은 전공자($M=3.07, SD=.97$)보다 정보수집활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3학년($M=4.28, SD=.7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학년($M=3.81, SD=1.08$)과 4학년($M=3.89, SD=1.01$), 1학년($M=3.07, SD=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수집활동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학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139$).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F=12.586, p<.001$)과 학년($F=31.623, p<.001$)에 따른 직업체험활동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진로결정

<Table 4> The difference in career preparation according to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grade

Variable	Cluster ¹⁾	Grade(N)	Mean ²⁾ ±SD	Variable	Cluster	Grade(N)	Mean±S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Low	Freshman(28)	2.58±.58	Career information collection behavior	Low	Freshman(28)	2.71±1.19
		Sophomore(29)	2.77±.72			Sophomore(29)	3.20±1.08
		Junior(14)	3.01±.22			Junior(14)	3.53±.77
		Senior(26)	3.08±.49			Senior(26)	3.06±.43
		Total(97)	2.83±.60			Total(97)	3.07±.97
	High	Freshman(9)	2.86±.48		High	Freshman(9)	4.20±.47
		Sophomore(27)	3.10±.57			Sophomore(27)	4.47±.59
		Junior(52)	3.45±.80			Junior(52)	4.48±.64
		Senior(32)	3.90±.93			Senior(32)	4.57±.82
		Total(120)	3.45±.83			Total(120)	4.48±.67
	Total	Freshman(37)	2.65 ^a ±.56		Total	Freshman(37)	3.07 ^a ±1.24
		Sophomore(56)	2.93 ^b ±.66			Sophomore(56)	3.81 ^b ±1.08
Junior(66)		3.36 ^c ±.74	Junior(66)	4.28 ^c ±.77			
Senior(58)		3.53 ^c ±.86	Senior(58)	3.89 ^b ±1.01			
Total(217)		3.17±.80	Total(217)	3.85±1.08			
Career experience behavior	Low	Freshman(28)	1.93±.58	Career preparation behavior	Low	Freshman(28)	2.32±1.36
		Sophomore(29)	2.44±.61			Sophomore(29)	2.50±1.16
		Junior(14)	3.21±.25			Junior(14)	2.86±.41
		Senior(26)	3.16±.53			Senior(26)	3.46±.53
		Total(97)	2.60±.75			Total(97)	2.76±1.10
	High	Freshman(9)	2.29±.48		High	Freshman(9)	3.17±.79
		Sophomore(27)	2.83±.38			Sophomore(27)	2.91±.44
		Junior(52)	3.47±.68			Junior(52)	2.94±.90
		Senior(32)	3.63±1.10			Senior(32)	3.56±1.16
		Total(120)	3.28±.86			Total(120)	3.12±.93
	Total	Freshman(37)	2.02 ^a ±.57		Total	Freshman(37)	2.53 ^a ±1.29
		Sophomore(56)	2.63 ^b ±.54			Sophomore(56)	2.70 ^{ab} ±.90
Junior(66)		3.42 ^c ±.62	Junior(66)	2.92 ^b ±.82			
Senior(58)		3.42 ^c ±.92	Senior(58)	3.52 ^c ±.92			
Total(217)		2.97±.88	Total(217)	2.96±1.02			

¹⁾ Level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y cluster analysis

²⁾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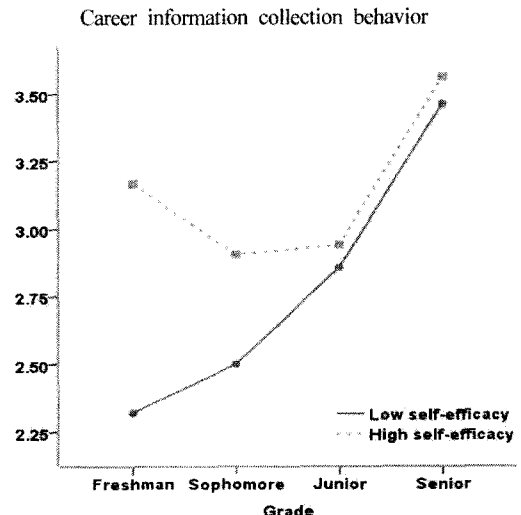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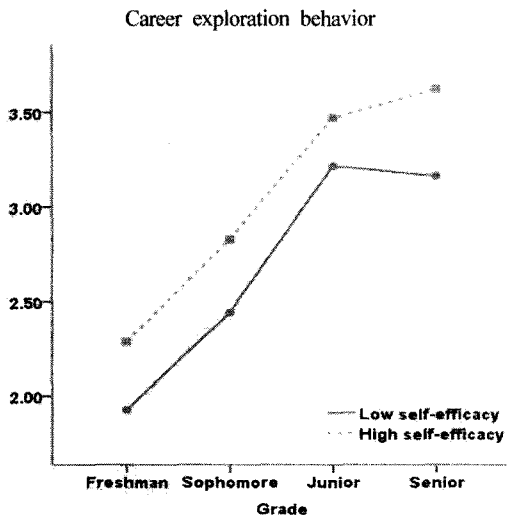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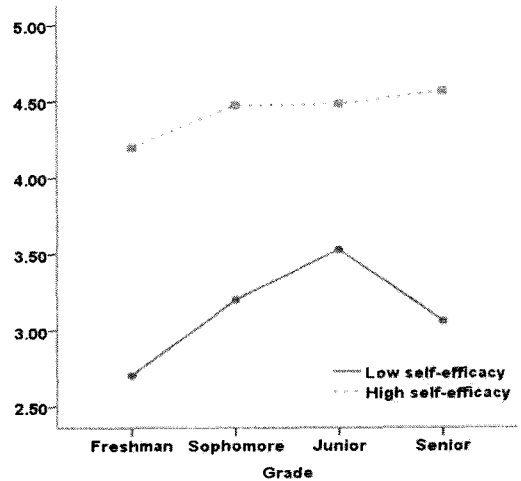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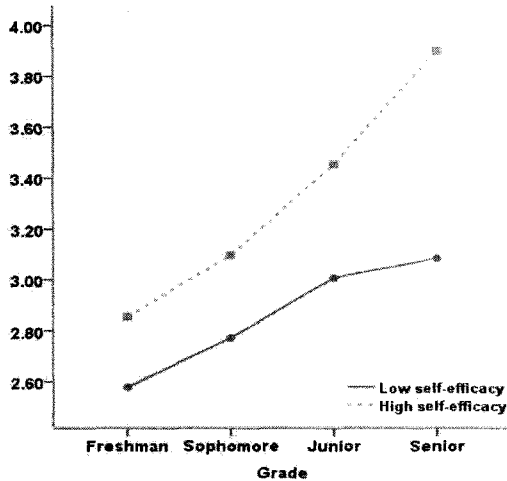
<Table 5> The results of two-way ANOVA

Variable	Source	F	R ²
Career exploration behavior	Self-efficacy(A)	19.201***	.272
	Grade(B)	10.277***	
	A×B	1.558	
Career information collection behavior	Self-efficacy(A)	111.337***	.460
	Grade(B)	2.662*	
	A×B	1.139	
Career experience behavior	Self-efficacy(A)	12.586***	.432
	Grade(B)	31.623***	
	A×B	.20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lf-efficacy(A)	6.044**	.161
	Grade(B)	8.172***	
	A×B	1.203	

* p<.05, **p<.01, ***p<.001

자기효능감이 높은 전공자(M=3.28, SD=.86)가 낮은 전공자(M=2.60, SD=.75)보다 직업체험활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3학년(M=3.42, SD=.62)과 4학년(M=3.42, SD=.9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학년(M=2.63, SD=.54), 1학년(M=2.02, SD=.5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체험활동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학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203$).

넷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F=6.044, p<.01$)과 학년($F=8.172, p<.001$)에 따른 취업준비활동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전공자(M=3.12, SD=.93)가 낮은 전공자(M=2.76, SD=1.10)보다 취업준비활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4학년(M=3.52, SD=.9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학년(M=2.92, SD=.82), 1학년(M=2.53, SD=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준비활동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학년 간의 상



Career exploration behavior
Career information collection behavior
Career experience behavio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ig. 1〉 Interaction effects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grade

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203$).

V. 결과 및 제언

본 연구는 일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선택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접해있는 외식조리 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학년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인들이 전공자의 진로준비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년이 올라 갈수록 진로를 준비하기 위하여 진로탐색, 정보수집, 체험활동 및 취업준비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Son EY과 Son JH(2005), Park JG과 Lee H(2006)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전공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Park JG 2006; Lee KH·Lee HJ 2000.; Betz NE *et al.* 1996; Taylor KM & Betz NE 1983)는 대부분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학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 1, 2, 3학년 보다 4학년의 취업준비활동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이 저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고학년이 되어야 급박하게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의 정보수집활동과 직업체험활동의 경우 3학년보다 4학년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저학년 단계에서 체계적인 자기 탐색을 통해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4학

년이 되어서 진로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외식조리 관련 전공자의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이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해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학년에 따라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저학년 시기에는 자기탐색과 진로에 대한 비전을 확립시키고 고학년 시기에는 직업탐색 및 취업준비 강화훈련과 같은 구조화된 틀을 마련하여 외식조리 관련 전공자의 진로결정과 준비과정을 조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서 살펴본 역량기반 교육과정(Competency based curriculum)의 개발 및 진로와 관련된 교육과정 개발 등을 통한 학년에 따른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전공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 스스로의 삶의 목표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준비해 나가는 태도를 갖고 실천해 가는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을 위한 다양한 행동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행동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전공자의 개인별 특성 및 진로와 관련된 사고체계나 신념 등을 파악하는 데 있어 학과 교수의 역할은 중요하다. 즉,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뿐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자아개념이나 자아실현을 경험하는 인간으로서의 사회·심리적 욕구를 충족하는 기본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과 연구의 제한점을 들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충청지역의 외식조리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제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표집대상을 다양한 지역과 학교 형태별로 확대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외식조리 관련 전공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높이기 위한 영향 변수를 고려한 연구모형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진로장벽, 진로결정수준, 진로 상담프로그램)을 고려한 관계 규명도 필요할 것이다.

한글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외식조리 관련 학과 전공자의 학년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청도에 소재한 4년제 3개 대학의 외식조리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25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33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217명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를 준비하기 위하여 진로탐색, 정보수집, 체험활동 및 취업준비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전공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학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년에 따른 구조화된 진로교육의 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1-161, 서울.
- 문소령 (2010). 조리전공 학생의 직업가치관이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1-2. 광주.
- 박완성 (2002). 고교생의 진로자아효능감,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1-148, 서울.
- 이학식, 임지훈 (2006). SPSS 12.0 매뉴얼. 법문사, 412-418, 서울.
- 홍영옥 (2011). 가족체계, 완벽주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간의 관계 연구. 경기대학교, 1-89, 서울.
- Ahn SK (2009). An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internship training on job pursuit intentions: Focusing on the hotel & tourism colleges of J university in Jeonbuk and C university in Chungnam. *Korean J Culinary Res* 15(2):31-44.
- Altman L, Brothers L (1995). Career longevity of hospitality graduates. *FIU Hospitality Rev* 13(2):77-83.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 84(2):191-215.
- Betz NE, Hackett G (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 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 in college woman and men. *J Counseling Psychology* 28(5):399-410.
- Betz NE, Kiein KL, Taylor K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 Career Assessment* 4(1): 47-57.
- Choi HJ, Shin SY, Yang IS (2007). Usage frequency and importance of competencies required to restaurant industry professionals. *J Korean Socf Dietary Culture* 22(2):201-209.
- Choi IS, Hong DY (200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oks training model: Outside the exiting systems. *J Foodservice Management* 5(2):163-181.
- Cho SY, Moon MR (2006). The effectiveness of a career-counselling program for nontraditional students. *Korean J Counseling & Psychotherapy* 18(4):731-748.
- Cho TY, Lee MS (2009).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vocational maturity and career prepa-

- 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flight services-related studies. *Korean J Aviation Management* 7(1):69-86.
- Chong YK, Jung WH, Kim YG (2007). Research trends regarding foodservice management: Review of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J Foodservice Management* 10(2):73-91.
- Chong YK, Hwang HJ, Huh KS (2006). The effects of internship program satisfaction on the career decisions of culinary major students. *J Korean Soc Food & Cookery Sci* 22(5):702-711.
- Hackett G, Betz N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 Vocational Behavior* 18(3):326-339.
- Jang BS, Choi YL, Lee JH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maturity on consciousn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university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physical. *J Sport & Leisure Studies* 40(1):57-67.
- Kim HJ, Jang YO (2011).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social support and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 Youth Studies* 18(7):1-32.
- Kim JH (2005). A comparative study of the career choices of culinary department students at the junior college level. *J Foodservice Management* 8(3):165-183.
- Kim JH (2006). The characteristics of career attitude on the college students specializing in hotel and culinary by personality type.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 44(4):49-63.
- Kim JH, Chun BG (2007). Undergraduates' occupation-appraisal: Focus on tourism industry. *Korean J Tourism Res* 22(3):105-123.
- Kim KW, Cho YH (2011).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career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among freshmen. *Korean J Youth Studies* 18(4):197-218.
- Kim KY (2005). A study on the interdisciplinary citation patternship. *Korean J Culinary Res* 11(3):1-17.
- Kim KY, Lee JH (2006). A study on the awareness of foodstylist job information for culinary arts science high schoolers. *Korean J Culinary Res* 12(3):91-107.
- Kim YM, Hyeon SH (2008). The relationship among dance career, career self-efficacy, academic adjust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i Soc Dance J* 17:1-18.
- Ko DW, Chun BG (2003). The concept and measurement scale of job-esteem: The case of undergraduates majoring tourism studies. *J Tourism Sci* 26(3):279-297.
- Kopelman RE, Rovenpor JL, Millsap RE (1992). Rationale and construct validity evidence for the job search behavior index. *J Vocational Behavior* 40(3):269-287.
- Lee EK, Lee HS (2002). A study on the effect on career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attitude and maturity. *Korean J Counseling & Psychotherapy* 14(1):109-120.
- Lee IS, Lee KL (2010). Effect of satisfaction with the curriculum on career decisions among the students majoring in Korean food. *Korean J Culinary Res* 16(1):50-60.
- Lee JY, Yang NM (2007). Multi-group analysis of career choice model in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EWHA J Social Sci* 17:75-99.
- Lee KE, Kim TH (2005). Investigation of factors influencing career decision-making of students in foodservice management and culinary arts

- programs. *J Community Nutr* 10(3):311-318.
- Lee KH, Lee HJ (2000). The effects of career self 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 Counseling & Psychotherapy* 12(1):127-136.
- Lee SH, Kim SH, Kim MS (2003). The condition analysis about job satisfaction and separation propensity of foodservice industry culinary employee's. *Korean J Culinary Res* 9(4):144-161.
- Lee SJ (2005). A study o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of hotel and family restaurant cooks. *Korean J Culinary Res* 11(4):150-163.
- Lee YB (2003). A study on the curriculum development to improve job competence in department of culinary arts. *J Foodservice Management* 6(2):143-164.
- Lent RW, Hackette G (1987). Career self-efficacy: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 Vocational Behavior*. 30(3):347-382.
- Park GW, Lee KH (2007).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mediated by career self-efficacy. *Korean J Counseling & Psychotherapy* 19(2): 409-422.
- Park JG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college dance students. *Korean J Sport Psychology* 17(3):47-60.
- Park JG, Lee H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college dance students. *J Sports Culture & Sci* 13 :1-11.
- Park JH, Kim HS (2009).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mpus adjustment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 Youth Studies* 16(11):125-144.
- Son EY, Son JH (2005). The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Korean J Counseling & Psychotherapy* 17(2):399-417.
- Speich RT (1987). A review of correlates and measurements of career indecision. *J Career Development* 14(1):8-23.
- Stumpf SA, Colarelli SM, Hartman K (1983). Development of the career exploration survey(CBS). *J Vocational Behavior* 22(2):191-226.
- Taylor KM, Betz NE(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indecision. *J Vocational Behavior* 22(1):63-81.
- Taylor KM, Popma J (1990). An examination of relationships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alience, locus of control, and vocational indecision. *J Vocational Behavior* 37(1):17-31.

2011년 07월 26일 접수
 2011년 09월 07일 1차 논문수정
 2011년 09월 17일 게재확정